

文 청와대 출신들, ‘檢, 文 전 대통령 딸 자택 압색’ 비판 “전형적 정치보복 망신주기 수사 행태”

민주 윤건영 의원 “너무 한 거 아니냐…尹, 그 칼에 스스로 당할 것” 경고
전병헌 새미래 대표, “김건희 수사 등과 비교돼尹 지지율 추락 계속되는 것”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인권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31일 페이스북 글에서 한 영화 대사 발언 인용해 “그 너무 심한 거 아니요?”라고 운을 찌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검찰에게 이 대사를 들려주고 싶었다. 해도 너무한다고. 이제 그만 하라고 말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몇 년 동안 털어도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한다. 7년 전 사건을 조사 한다면

서, 왜 최근 딸의 전세 계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뒤지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자신들이 바라는 죄가 나올 때까지 별건조사는 기본이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제 정치보복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나”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치검찰의 칼날은 진보정권에선 사시미처럼 날카로운 칼이 되지만 보수정권에선 연필조차 쥐지 못하는 무딘 칼이 된다”며 “정치검찰의 그릇된 행동 하나하나를 끝까지 따질 것이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정치보복이

란 칼을 너무 믿지 말라”며 “결국 그 칼에 스스로 당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정부 정부수석을 지낸 전병헌 새미래 대표는 “전형적인 정치보복 망신주기 수사행태”라며 “헤어질지 오래인 전 남편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분개해 살고 있는 다혜 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도를 넘은 전형적인 정치수사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 수사 행태가 김건희 여사 수사나, 채상병 회생에 대한 수사와 비교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락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또

하나의 의문은 이재명 당대표 후 프로방탄 전문당이 된 민주당은 아무런 대처나 반응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신의도 역사도 정통성도 민생도 안중에 없고 당대표 방탄 전문당,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진 정당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형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 사위를 탈탈 털어도 사건이 잘 되지 않으니 표적을 바꿔 먼지털이를 시작하려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선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힘의 백분의 일도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혐의를 밝히는 데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도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늦은 오후 다혜 씨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뉴스

전북자치도, 외국인 주민 도정 모니터링단 출범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해 '제1기 외국인 주민 도정 모니터링단' 25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 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은 도내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유입 확대에 따라 이들의 지역 정착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중국, 스리랑카, 베트남 등 8개 국적의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모니터링단은 앞으로 1년간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북도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모니터링단 회의는 평일 근로·학업 등 외국인의 일정을 고려하여 주말에 운영될 예정이다.

발대식에서는 모니터링단 위촉장 수여식과 역할 안내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외국인 주민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니터링단이 제시한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내외국인 통합 프로그램 마련, 외국인 정착 지원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건의를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발대식 후, 모니터링단은 올해 4월 도에 첫 개소한 전북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전주상공회의소 6층)를 방문하여 센터의 주요 사업을 청취했으며, 특히 대한공중보건학회의와 연계한 무료 한방치료 등을 체험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임사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달 30일 제28회 임사회를 개최하고, 9월 5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김승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112년 전통의 태인시장, 태인의 역사적 가치를 강조했고, 이도형 의원은 ‘발코니인가? 본부식인가?’를 역설했다.

서항경 의원은 정읍시는 효율적인 도로 굴착 공사로 시민의 일상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이상길 의원은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을 촉구했다.

이번 임사회의 주요 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1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전 심사가 있으며,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전을 처리하고 임사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전 심사 활동은 정읍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국회단체 대응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2025년 국기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서자고 강조하고 있다.

‘전북 홀대 대광법, 도민의 힘으로 바꾼다’

도민 100여명 참석 대광법 공청회 개최… 민주 이성운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이 주최한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가 전북특별자치도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북도의회 2층 의원 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은 1997년 제정 이래 사실상 전북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성운 의원은 공청회 개최를 통해 “대광법 시행 후 전국의 5대 광역

도시는 수십조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지만, 전북은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차별적 지원이 전북 교통환경을 낙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전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을 통한 전주권 신설의 타당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전북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대광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또한, 공청회에는 모창환 국제교통연구소 소장, 김상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엄성복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정태성 민주당 전주시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전북의 교통인프라 확대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끝으로, 이성운 의원은 “공청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전북자치도민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 신속하게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탄력 받을 듯

민주 김윤덕 의원 ‘1호 공약’, 당 정기국회 입법과제 선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이 대표발의했던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전북 대광법과 새만금법 등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대광법은 전북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김윤덕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1호



도시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법이었다. 현행법상 ‘대광법’이 적용되는 대도시권 지역은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

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신규 교통망 확충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김윤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자신의 요청에 화답한 이춘석 의원,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들과 진성준 정책위의장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과 새만금특별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입법과제들이 차질 없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30일 김제 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위치한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농우바이오, 아시아종묘 등 입주기업 15개 사와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식품부, 김제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들이 함께하

여 종자산업 진흥과 기업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민간 육종연구단지와 종자산업진흥센터 현황을 비롯해 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 및 진입로, 배수로 등 인프라 개선과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소중한 의견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마련해 기업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달 30일 도의회 의정실에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공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 위해 힘 모은다

전북자치도의회, 전북상협과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지난 달 30일 도의회 의정실에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공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문승우 의장, 김경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합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상공업 지원을 통한 성장 발전 모색 △정

책간담회 등 활발한 정보교류 추진 △기업하기 좋은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여건 및 제도 마련 △미래지향적 상호발전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문승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상공인들이 활기차게 경제활동에 매진하여 살고 싶은 전북, 기업하기 좋은 전성화를 위해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SG 경영 촉진 방안 입법에 최선”

민주 한준호 의원, ‘THE BEST ESG 특별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이 지난 달 30일 사단법인 한국ESG위원회로부터 ‘THE BEST ESG 특별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ESG위원회와 ESG코리아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한국ESG경영대상 ‘The Best ESG’ 공모전에서 입법부문 특별상에 선정된 것이다.

특히 한준호 의원은 환경과 사회를 위한 입법 및 의정활동에 공로가 큰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실제로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항공업계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두 차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한준호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인 만큼, 앞으로도 ESG 경영 촉진 방안을 입법 과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수제맥주 한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돼야”

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시 청주·수제맥주사업 관련

“투자 대비 공급 부족… 예산만 낭비됐다면 시민에 사과를”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지난 달 30일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21, 군산시의 청주·수제맥주사업, 당시 돈이라면 하겠는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22년부터 군산 맥아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수제맥주 페스티벌을 기획해 3년째 개최하였는데 총 3회 동안 축제 예산만 12억7,500만원,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 농가에서 생산한 양조용 맥아 가공량은 2022년 11톤, 2023년 30톤, 2024년 63톤으로 거북이걸음 중인데, 맥아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수제맥주축제도 하고 이제는 중국 청다도 맥주와 국제 교류까지 한다며 최근에는 청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생산시설을 만들고 있고 머지않아 청주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일본 사케와 국제교류까지 하게 생겼다며 한-중-일 술 축제

개최 및 국제교류가 목표라면 정신차리라고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누가 왜 갑자기 청주를 수제맥주에 끼워넣어 청년 창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을 도모하는지 알 수 없으나, 군산시가 직접 출자하여 청주 양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군산시가 수제맥주의 원료인 보리와 맥아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수제맥주 산업만 육성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청주의 등장은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군산시가 진정으로 군산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수제맥주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내고 청주는 다른 주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수제맥주 사업을 추진한 지 7년, 이를 위한 축제 3년, 총 54억 7,2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됐고 이 기간 동안 맥주용 맥아 공급량은 119톤 1억 3,400만원에 불과하니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한 사업이 농민 소득에 기여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면 시민에게 사과하고 아울러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주산업 육성을 당장 중단하라며 집행부에 촉구했다. /군산=이재훈 기자